

##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간 관련성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형실\*<sup>1)</sup>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Peer Relations Among Adolescents

Lee, Hyong-Sil\*<sup>1)</sup>

*Prof.,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peer relations among adolesc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middle school students who reside in Seoul. 425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Findings of this study fro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indicated that parenting behaviors affected self-esteem. Self-esteem of adolescents influenced peer relations. This study showed that self-esteem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peer relations.

**Key words:** 부모의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s), 자아존중감(self-esteem), 또래관계(peer relations)

---

---

1) 교신저자: Lee, Hyong-Sil,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The Republic of Korea  
Tel: 02-820-5397, Fax: 02-812-5311, E-mail: hslee97@hotmail.com

## I. 서론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축소와 출생률 저하로 인한 형제 관계의 감소,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변화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할 기회가 감소함에 따라 청소년의 바람직한 또래관계 발달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Rhee & Koh, 1999). 또한 또래괴롭힘 현상과 청소년 폭력, 자살 등의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점차 독립하여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커진다. 청소년은 자신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을 이해해주는 또래에게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며(Hartup, 1993),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또래에게 많은 의존을 하고 또래로부터 지원과 이해 및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된다. 청소년은 또한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을 확립하게 되며,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게 된다(Hong & Doh, 2002). 청소년기 또래관계는 청소년기의 적응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중요하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Dekovic & Meeus, 1997; Hong & Doh, 2002; Allen, Porter, McFarland, McElhaney, & Marsh, 2007; Lim & Park, 2010; Kim & Lee, 2014)에서 입증되었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간 관련성을 밝히고 있으나, 그 관련성의 다양한 경로나 기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가 관련되는 기제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 기제를 밝히는 것은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또래관계로 인한 문제에 개입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여러 과정을 거쳐 또래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에 주목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거나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지 않은 경우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잉기대나 과잉간섭일 경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o, 2008; Chang & Chung, 2013 재인용). 또한 부모 자녀 간 애착정도가 높고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지도 감독할수록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8). Kang과 Choi(2013)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지지적이고 온정적으로 지각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Moon(2014)의 연구에서 방임과 학대 정도로 측정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에 의해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맺는 또래관계와 관련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또래관계는 자아존중감의 결과일 수 있다.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에 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는 많지 않으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또래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심리내적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ng & Choi, 2013). Choi, Moon과 Moon(2013)의 연구, 그리고 Kwon과 Sung(2014)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아동은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할 경우 또래애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2003)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Chae, 2004 재인용). Barnown, Lucht와 Freyberger(2005)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집단에 수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또

래집단에의 수용이 공격성과 비행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Kang & Choi, 2013 재인용). 또한 O'Moore와 Kirham(2001)도 높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또래괴롭힘에 관여하지 않도록 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인 또래관계의 질과 부정적인 측면인 또래괴롭힘을 또래관계에 함께 포함하였다.

한편, Dekovic와 Meeus(1997)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어머니의 자녀양육 방식과 자녀의 또래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Jeong과 Lee(2012)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긍정적인 또래애착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밝히면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타인과의 안정된 관계속에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 과보호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타인과의 불안한 관계속에서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한다고 제시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ang과 Choi(2013)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Lee(2014)의 연구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모애착이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한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결과를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가 관련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매개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간 관련성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행동,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2.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의 관련성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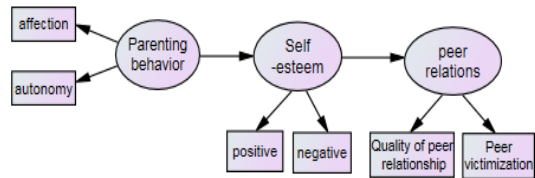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model

## II.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 소재 4개 중학교(강남, 강동, 강북, 강서 지역)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임의 표집 하였으며 총 6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한 후 510부를 회수하여 85%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부실 기재된 85부를 제외하고 425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남학생이 185명(43.5%), 여학생이 240명(56.5%)이었다. 형제, 자매 수를 살펴보면 두 명인 경우가 292명(6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외동이 64명(15.0%), 세 명이 58명(13.6%)의 순이었다. 한 달 가구 소득은 350만원에서 500만원(33.6%)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200만원에서 350만원(24.2%), 500만원에서 650만원(15.3%)의 순이었다.

## 2. 측정도구

**부모의 양육행동.**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Cho(2002)가 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중 애정-적대 6문항과 자율-통제 6문항, 총 12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으로 지각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적대적,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애정-적대는 .771, 자율-통제는 .828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10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스스로 존중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긍정적 문항은 .906, 부정적 문항은 .740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의 질.** 또래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An(2007)이 친구관계에 대한 기능적 특성 척도를 15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37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 또래 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하여 Perry, Kusel과 Perry(1988)의 또래 괴롭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Wiggins와 Winder(1961)가 개발한 Peer Nomination Inventory(PNI)를 토대로 수정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자기보고

에 의한 또래 괴롭힘 평가 7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인지하는 또래 괴롭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13으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인들의 기술통계치(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상관계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간접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변인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보면, 왜도와 첨도 절대 값이 2 이하로서 적정 수준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측정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27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Variable	N	M	SD	Skewness(S.E.)	Kurtosis(S.E.)
Parenting behavior (affection)	425	3.80	0.65	-0.38(0.12)	0.09(0.24)
Parenting behavior (autonomy)	425	3.62	0.72	-0.31(0.12)	0.09(0.24)
Self-esteem(positive)	425	3.74	0.79	-0.27(0.12)	0.02(0.24)
Self-esteem(negative)	425	3.32	0.72	1.18(0.12)	0.09(0.24)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425	3.93	0.65	-0.12(0.12)	0.59(0.24)
Peer victimization	425	1.72	0.75	1.17(0.12)	0.94(0.24)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1. Parenting behavior (affection)	2. Parenting behavior (autonomy)	3. self-esteem (positive)	4. self-esteem (negative)	5.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6. peer victimization
1	1					
2	.667**	1				
3	.440**	.439**	1			
4	.428**	.418**	.632**	1		
5	.393**	.415**	.494**	.342**	1	
6	-.283**	-.288**	-.273**	-.361**	-.354**	1

\*\*p<.01

에서 .66사이로, 부모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대와 부모의 양육행동 중 자율-통제 간 상관계수가 .66으로 가장 높고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또래괴롭힘 간 상관계수가 .27로 가장 낮았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대 및 자율-통제와 자아존중감간 상관계수는 .41에서 .44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질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또래괴롭힘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이 나타났다.

2. 모형의 검증 및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hi^2/df$ , CFI, GFI, TLI, RMSEA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hi^2/df$ 는 3이하일 때 매우 양호하고, 5이하일 때 양호한 수준으로 간주된다(Song & Kim, 2012). 또한 CFI, GFI, TLI는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할 수 있고, RMSEA는 0.05보다 작으면 매우 적합한 수준, 0.05에서 0.1 범위이면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Hong, 2000).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Figure 2>).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50이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며 타당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2.960$ , CFI=.988, GFI=.989, TLI=.964, RMSEA=.068로 나타나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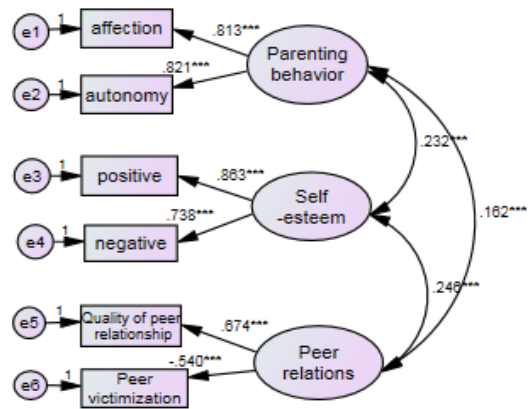


Figur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hi^2/df=2.960$ ,  $p=.011$ , CFI=.988, GFI=.989, TLI=.964, RMSEA=.068

구조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chi^2/df$ 값은 3.861로 나타나 적합한 수준이었다. CFI는 .979, GFI는 .983, TLI는 .948로서 모두 0.9 보다 높았고, RMSEA는 .082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Figure 3>에 제시되었다.

구조모형의 잠재 변인 간 경로분석 결과와 경로에 대한 효과는 <Table 3>과 <Table 4>에 제시되었다. 각 경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719$ ,  $p<.001$ ).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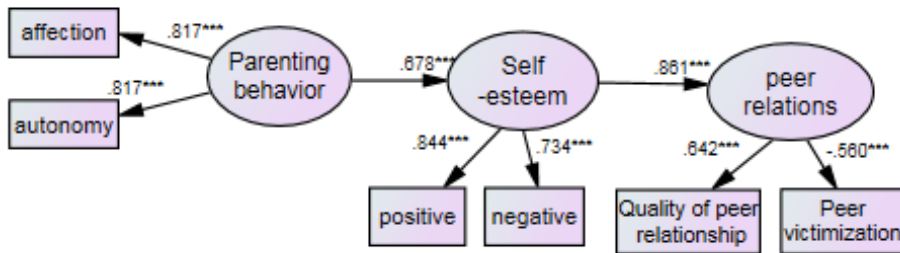


Figure 3. SEM model predicting peer relations

$\chi^2/df=3.861$ ,  $p=.001$ , CFI=.979, GFI=.983, TLI=.948, RMSEA=.082  
 \*\*\* $p<.001$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719$ ,  $p=.041$ ).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또래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간접효과는 0.604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1$ ). 즉,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의 관련성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중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또래관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Path analysis of SEM model

course	B	$\beta$	Standard error (S.E)	Critical ratio (C.R)	p
Parenting behavior (affection)	1.000	.817			
Parenting behavior (autonomy)	1.100	.817	.086	12.770	***
Self-esteem (positive)	1.000	.844			
Self-esteem (negaive)	0.794	.734	.059	13.404	***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1.000	.642			
peer victimization	-1.010	-.560	.128	-7.894	***

\*\*\* $p<.001$

Table 4. The decomposition of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course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Parenting behavior → Self-esteem	.678***	-	.678***
Self-esteem → Peer relations	.891***	-	.891***
Parenting behavior → Peer relations	-	.604**	.604**

\*\*\* $p<.001$ , \*\* $p<.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간 관련성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 3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25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할 경우 자녀는 자신을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를 적대적으로 대하며 지나치게 통제하면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게 된다. 이는 부모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Heo, 2007; So, 2008; Kang & Choi, 2013)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겪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함께 과중한 학업부담을 경험하는 청소년 자녀에게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점차 독립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자율성을 격려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에 높은 수준의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 질이 높고 또래괴롭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만족스러운 또래관계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Choi, Moon, & Moon, 2013; Kang & Choi, 2013; Kwon & Sung,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력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 반영되므

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를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또래와의 관계 질이 높고 또래괴롭힘 수준이 낮아진다. 반면에 부모의 적절하지 않은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며 또 이는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쳐 형성된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의 관련성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써 또래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래 사이의 괴롭힘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부모의 양육행동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 자녀의 지지 기반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면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향상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부정적인 또래관계로 인한 문제들이 청소년의 부모와 청소년 개인에 대한 개입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과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또

래괴롭힘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도록 돕는 교육과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개선하고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청소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또래로부터의 거부,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같은 부정적인 또래관계로 인한 우울, 자살 등의 청소년의 적응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간 관련성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었으나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과 또래관계가 관련되는 과정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다각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시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청소년 전체에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Allen, J. P., Porter, M., McFarland, C., McElhaney, K. B., & Marsh, P. (2007). The relation of attachment security to adolescents' paternal and peer relationships,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78*, 1222-1239.
- An S-Y (2009). The effects of individual psychology and family variables o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3), 163-176.
- Barnown, S., Lucht, M., & Freyberger, H. J. (2005). Correlates of aggressive and delinquent conduct problems in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31*, 24-39.
- Brown, B. B., Mounts, N., Lamborn, S. D. & Steinberg, L. (1993). Parenting practices and peer group affili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4*, 467-482.
- Chae Y-G (2004). A study on adolescents' perception on the correlation among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136-144.
- Chang H-L & Chung I-J (2013).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mediated by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40*, 33-61.
- Cho, Y-N (2002). *A study on the perceived interparental conflicts and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J-E, Moon D-G, & Moon S-B (2013). A structural analysis of school-aged children's peer relationship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 99-111.
- Dekovic, M. & Meeus, W. (1997). Peer relations in adolescence: Effects of parenting and adolescents' self-concept. *Journal of Adolescence, 20*, 163-176.
- Hartup, W. W. (1993).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 1-13.
- Heo B-H (2007). *The effects oh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self-esteem and soci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 Hong S-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Hong, J-Y & Doh H-S (2002). Parental marital conflict,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5), 125-136.
- Jeong Y-H & Lee I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child's separation-individuation. *Korean*



- Journal of Youth Studies*, 19, 225-248.
- Kang, K-H & Choi, S-M (2013). The influences of adolescent'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and social relationship on externalizing problems. *Studies on Korean Youth*, 24(4), 55-85.
- Kim J-Y & Lee H-S (2010). The effects of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22, 21-32.
- Kim, S-B & Lee S. (2014). The influences of children's mother attachment on maladjustment behavior: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Journal of Play Therapy*, 18(2), 33-51.
- Kwon H-J & Sung M-Y (2014). The effects of children's self-esteem on their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on of peer attachment. *Family & Environment Research*, 52, 395-403.
- Lee J-L (2008). An initial investigation into self-control and self-esteem as mediators in the link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externalizing symptom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5, 87-102.
- Lim S-H & Park S-Y (2010). The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s, maternal warmth, and children's academic competence on the quality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31, 85-101.
- Moon E-S (2014). A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s' parenting attitudes,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influencing middle school students' levels of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1, 23-36.
- O'Moore, M. & Kirkham, C. (2001). Self-esteem and its relationship to bullying behaviour. *Aggressive Behavior*, 27, 269-283.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Rhee U-H & Koh Y-J (1999). The development of a friendship quality scal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20(2), 225-24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o M-G (2008). *The study on parenting from the perspective of juvenile, their self esteem and mis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T-M & Kim G-S (2012). 보건복지 연구를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한나래.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간 관련성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 3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25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에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쳐,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 자녀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간의 관련성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4년 11월 14일, 논문심사일자: 2014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12월 23일